

상훈도 무대도 높아졌다! 제1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고객홍보팀



제1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수상자들. 2016년도 파이팅!!!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의 축사 속 한마디처럼, 축산농가나 축산물품질평가원 모두에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지난 한 해가 어떠했나 돌아보고 한 해를 마감하는 총결산 같은 행사다. 개최 소식만 들어도 '아! 올 한 해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여실히 체감하게 된다.

올해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처음으로 상훈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돼 의미가 더 깊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본원을 이전한 후 개최하는 첫 회이기도 했다. 상훈으로서도, 개최 무대로서도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움. 여러모로 발전된 시상식이다.

그런 만큼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서는

일찌감치 시상식장을 단장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행사장 안팎으로 현수막과 알림 배너를 설치했고, 먼 길 오시느라 혹은 긴장해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 떡이나 과일, 김밥 등 다과를 준비했다.

방문객들은 다양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수상자들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함께한 가족·친지들이 있었다. 그리고 시상을 위해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 관계자와 언론사 대표들, 취재진이 행사의 격을 높였다. 그리고 세종시 근교에서 보기 드문 행사에 구경차 온 지역주민도 일부 있었다.

수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로비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처음의 긴장감이 잦아들었다. 대신 수상의 설렘과 오랜만에 시상식을 통해 만나게 된 지인과의 해후에



접수대에 몰린 인파.
잠시 후 이곳은 사진기로 담지 못할 만큼 인파에 휩싸일 예정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대한 반가움 등으로 인한 흥분감이 자리를 채웠다.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시상식 개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특히 가슴 한쪽 코르사주를 단 수상자들의 표정은 더 없이 밝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 축평원 1층 세종홀에서 시상식의 막이 올랐다. 자리에 표시된 본인의 이름을 찾아 자리한 이들은 다시금 긴장에 빠진 듯 보였다. 물론 이는 곧 '얼음-땀!!', 수상자 소개 영상이 나오는 순간부터 싹 풀려버렸다. 휴대전화로 대형스크린에 뜬 본인의 모습을 찍느라 바쁜 이들에게선 아이와 같은 해맑음까지 비쳤다.

수상을 위해 무대에 선 얼굴에서는 뿌듯함이 그대로 읽혔다. 수많은 축산농가들 중에 선정돼 이런 상을 받기까지 그간 쏟았을 부단한 노력을 이런 상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만, 손주가 무대에 올라 전하는 꽃다발에 한껏 기뻐하는 수상자의 모습에서 더한 욕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나 남편, 자제와 손주들까지 총출동해 기쁨을 나누는 수상자의 모습에서는 감동까지 느껴졌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를 뽑자면 크게 두 개를 들 수 있다. 하나, 평가대상 최초의 대상-대통령상 시상이다. 상구 끝 '대통령 박근혜'가 울려 퍼지는 순간 잠시 잠깐의 묘한 정적, 큰 환호나 박수보다 더한 침묵이었다.

둘은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김스를 한 채 직접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올랐던 수상자다. 불러도 나오지 않는 수상자로 사회자가 잠깐 당황하는가 했는데, 행사관계자는 물론 주변의 다른 수상자들까지 자발적으로



꽃에 파묻혀..넘치는 축하



무대 밑 한 컷. 아싸~ 상 탔어!!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첫 대통령상 탄생



이천일 농식품부 국장과 국무총리상 한우 강동연 농가 불편보다 큰 수상의 기쁨



나서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며 행사장 한쪽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 속에 무대에 오른 이 수상자는 특히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렇다고 이 수상자가 가장 큰 박수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마지막으로 상을 받았던 이다. 긴 기다림 끝에 무대에 오른 이에게 참석자들은 어느 때보다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수상을 마치고 이어진 단체사진 촬영과 개인별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그런데 다들 행사장을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가 상을 받은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를 돌아보고, 자리표시용으로

붙였던 이름표를 조심스레 떼 기념으로 간직하겠다는 한 딸이 있었다.

상이 커지고, 무대가 달라지며 수상의 감격과 보람이 더 커졌지만, 수상자 한 명 한 명에게 본인이 수상한 상격에 연연하는 모습 따윈 없었다. 그저 지난 한해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기쁨만이 가득한 시상식이었다. 그리고 순수한 감동이 있었다.

감격스러운 끝을 위해 달렸던 2015년 한해. 감동스럽기까지 한 제1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과 함께 하는 마무리는 2015년의 기분 좋은 마침표였고, 2016년에 대한 설레는 예고였다. **동경255**



남는 건 사진이다! 기념사진 열기 '활활~'